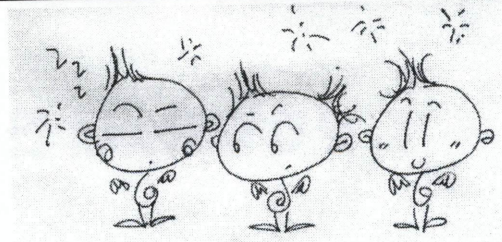


화 장 실 신 문



14대 총여학생회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분좋은 충돌!

화장실 신문 7호 (2002.5.27)

안녕하세요. 14대 총여학생회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분좋은 충돌!'입니다.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다들 여름을 맞을 준비들은 하고 계신가요?

기분좋은 움직임

5월 마지막 주에 총여학생회에서는요.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총여학생회 예산자치제를 모집합니다! 학내의 여성문제에 대한 활동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제14대 총여학생회의 예산자치제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일차적으로 학내의 자치단체와 여성학 수업 프로젝트, 그리고 여성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입니다. 빠방한 아이디어는 있으나 '머니'가 걱정이셨던 분들, 기획서를 들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첫모임은 총여학생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또, 이번 떡볶이수다는 'Body Talks' 특집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네 몸에 말 걸기'라는 주제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흔한 주제가 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반면에, 잘못된 성지식이나, 자신의 몸과 다른 몸에 대한 일반상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번 달 떡·수는 우리 몸에 대한 솔직한(적어도 솔직하려고 노력한) 이야기들을 풀어 보려고 합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 그만큼 잘못된 지식이 난무하는 성.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한가지더! 울산현대자동차 식당 노조 아주머니들의 이야기, 여성노동자 영상보고서 "밥꽃양"이 6월 8일 늦은3시/7시에 각당현에서 상영됩니다. 밥짓는 아줌마의 이야기가 대학생인 나와는 동떨어진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더더욱 직접 오셔서 "밥꽃양"을 보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집에서 맨날 밥하는 거 밖에서 한번더 하는게 뭐가 힘드냐'는 편견 속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아줌마들의 노동,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구조조정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 정리해고의 주된 대상으로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아줌마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성의 일하기가 이 사회 속에서 갖는 의미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겁니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생회관 앞에서 티켓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6천 원입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영상물이 아니니, 이번 상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나왔다! 뽕!



<< 새로운 대동제 문화! 여학우, 남학우 모두 즐거운 대동제! >>

대동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비록 비가 오는 곳은 날씨였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민중 연대 장터, 많은 자치단체와 동아리 행사 등으로 떠들썩한 무악 대동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즐겁다는 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논다'는 의미는 아니기에 우리의 무악대동제를 바라보며 '대학'의 축제로서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학우, 남학우 모두에게 즐거운 대동제'를 만들려고 했던 연세 성폭

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의 활동을 소개할까 합니다.

대동제 기간에 각 장터마다 붙어있던 포스터와 노란 풍선을 보셨나요?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대동제를 만드는데 우리 장터도 함께 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노란 풍선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모두가 하나 되는 대동제, 좀 더 재미있게 즐기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포스터가 바로 연성뿌연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성폭력과 대동제가 무슨 상관이나고 의아해 하실 분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한껏 들떠있는 축제 기간은 새터 기간만큼이나 성폭력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기 쉬운 때입니다. 늦은 시각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와 뒷풀이에서 빈번하게 오가는 성폭력적인 연사들, 술을 강권하는 모습, 장터에서 일어나는 성별 분업이나 여학우들만 잡고 늘어지는 호객 행위 등은 낯설지 않은 축제의 이면입니다. 아직까지도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문제제기 하거나 싫은 내색을 보이는 것은 마치 분위기를 깨는 것인 양 여겨지기 경우가 많고, 특히나 축제 기간은 '즐거워야 한다'는 이유가 피해자의 입을 막곤 합니다.

포스터 한 장 붙이는 것, 풍선 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 대동제 기간에 성폭력, 대학 내 남성 중심적 문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단지 성폭력을 막아보자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놀이 문화 속에 만연해있는 집단적이고 권위적이며 여성을 배제하는 분위기를 바꾸고 성별, 나이, 학번 그 모든 강제로부터 자유로운 '진정으로 모두가 즐거운' 대동제 문화를 만들어 보려는 연성뿌연의 시도가 새로운 대동제 문화를 만드는 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원.한. 게.시.판.



총여

(학생회관 3층에 오시면 총여학생회실을 찾을수 있어요~)